

다시 강조되는 企業人의 環境倫理



安 基 熙

(本 協會연수부教授 兼 開發部長)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을 대과없이 무난히 치루는 일이다.

그에 맞추어 차례지키기 등 각종 秩序運動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유수한 大企業들이 무더기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내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政策을 강력히 추진해온 결과 과도한 廢棄物 등으로 自然環境은 물론 生活環境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企業人의 環境倫理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企業人이 成長主道 그룹에서 國力伸張에 이바지 해온 공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企業人은 그 利益金의 일부를 社會事業에 환원함으로써 國民들의 존경을 받기도

한다. 그러한 企業일수록 이제는 더이상 自然環境秩序에 역행하지 말고 하나뿐인 이 祖國의 山河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 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自然環境은 人間生命의 원천이요 우리 生活의 영원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自然의 섭리와 生態系가 오염되거나 破壞되는 社會에서는 어떠한 秩序도 바로잡을 수 없으며, 그러한 環境에서는 世界的 大祭典을 훌륭하게 치룰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개발로 自然環境秩序에 거역하다 처절한 보복을 당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한다.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 「자카란다」 나무의 잔해를 굽는다. 토양은 메마르고 딱딱하게

66

企業들은 自然環境秩序에 역행하지 말고 하나
 뿐인 조국의 山河를 지키는데 동참을 해야 할 것
 이다.

99

곧어 마치 붉은 오지벽들 처럼 보인다. 한때
 5천톤급 배들이 항해했던 강들이 지금은 모래
 더미로 막혀서 겨우 「카누」1척이 지나갈 정
 도로 그 幅이 좁아져 있다. 교량들은 잡초와
 잡목만이 우거진 채 매말라 있는 협곡위를 가
 로 지르고 있다. 예전에 그 많고 풍성했던 식물
 들과 새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 모습들이 일그
 러져 있다』

이것은 남미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도」북방
 에 위치한 「에슈피리 투생투 州」의 자연과 인
 간들이 함께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참상을 수
 년전 「타임즈」가 기사화한 내용중의 일부분
 이다.

이와 같은 재앙은 秩序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自然의 順理를 무시하고 自然征服思想에 基
 調를 둔 人間中心으로 맹목적인 개발에만 전념
 해 온 人間들에게 전적인 그 原因이 있었다.

이런일이 있기전 약 30년전쯤 이곳에 이주해
 온 국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자 귀중한 「자카란다」와 「페로바」나무를 마
 구 불살라 버렸다. 거기다 도로가 개설되고 이

자연환경질서를 파괴하는 주요원인은 인
 간위주의 개발로 자연질서를 무질서하게 해
 버린 점이다.

지역에 목재수출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기계
 톱으로 숲의 나머지 부분을 모조리 잘라 버리자
 차츰 농토는 식량과 가축사료조차 제대로 자라
 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 되어 버렸다. 그 결과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450여종의 식물과
 204여종의 조류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

자 그들의 천적인 조류가 없어진 틈을 타 해충
 과 기생충들이 창궐하기 시작하여 풀잎, 농작
 물과 과일을 모조리 잡아먹어 울창했던 숲과 농
 산물은 온데 간데 없어졌으며, 결국은 그곳 주
 민의 90%가 각종 질병과 피부암이라는 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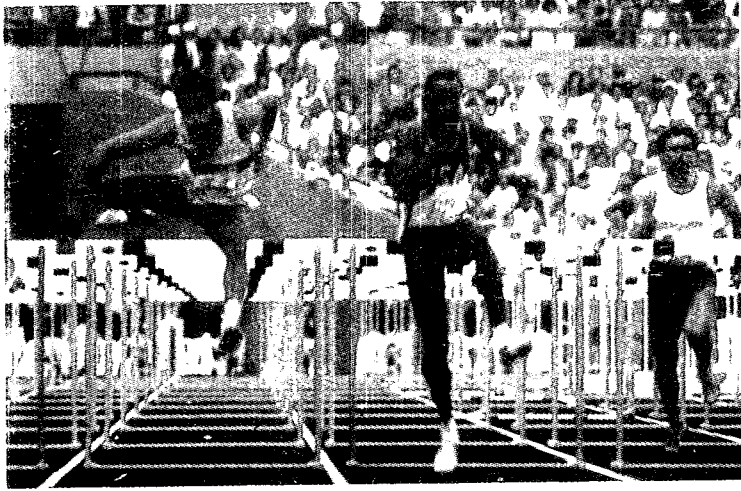


〈하천의 오염은 곧 우리 생명의 오염이다〉
 운 병에 걸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든 주민들은 그곳을 피해 또다른 곳으로 옮
 겨갈 수 있었겠지만 45억년간의 自然景觀(無
 生物)의 신비와 30억년간에 걸친 生態系는
 「開發이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 준다」는
 인간의 잘못된 과신에 의해서 수년간에 황폐화
 되어 버렸고, 그 보복이 自然의 秩序를 거역한
 人間에게로 되돌아 왔다는 順理를 현존하는 우
 리들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有限한 이 터전에서 영속적으로 살아
 가야할 후세대들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앞서 반
 드시 환경의 악영향을 고려해야 될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도처에서 開發과 文明
 이라는 미명하에 「보다 많이, 보다 크게, 보다
 빨리」라는 스로건과 함께 자연질서에 역행하는



“'86, '88이라는
세계적 대제전을
치루기 위해선
“쾌적한 環境”이
우선 돼야 한다.”

사례들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분기점에 와 있다.

自然環境秩序를 파괴하는 주요원인은 첫째, 人間爲主의 개발로 자연질서를 무질서하게 해 버린 점 둘째,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거대도시화와 산업화로 자연의 양을 적게하고 있는 점 셋째, 자연을 인간 위주의 편에서 질적으로 단순화, 획일화, 균일화 하고 있는 점 넷째, 人間界와 自然界가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주요현상은 일반 주민의 자연 경시에서 빚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公共開發 그리고 大規模의 民間開發의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環境容量을 무시한 과도한 開發은 단기적으로는 이로우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環境問題를 야기하게 되므로써 開發에 소외된 국민다수의 集團行動등 불만이 노출되기 마련이므로 주민참여등 사전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자란 자연환경으로 생애의 척도를 삼고자 한다. 그래서 자연은 어머니에 비유되고 山河를 찾는 젊은이의 내면 세계이기도 하다. 또한 자연환경은 사람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향수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영원한 고향인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보전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산소를 아끼자” “물과 토양을 살리자” 등의 구호를 높이 외치는 이유는 인류의 불시명망이 가능하리라는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開發(成長)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무분별한 開發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와 북구 제국에서는 산성비로 가문비나무 등이 고사되어가기 시작하자

「산소를 아끼자」 「물과 토양을 살리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며, 그것이 곧 나 자신의 삶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보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대로서 휴일이면 山河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레저도 인간이 잠시 복잡한 속세에서 벗어나 人間性을 되찾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開發은 단순화·정형화 되어간다. 오염되고, 시끄럽고, 무성하던 숲은 메말라가고 새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것에서 국가적·지구적規模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개인소유적, 지역적 발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의 오묘한 순리와 신선미가 우리 인간의 심성을 아름답게 길러주므로 자연을 우리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양성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 인간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비행증가와 자연의 양적감소는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야단 법석이다. 환경변화의 영향 또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용은 일생중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 제일 크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시멘트담을 헐고 녹색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건물과 시멘트 벽은 차갑고 청소년들이 접근할 마음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물구조와 색깔도 개성과 다양성을 띄기 시작했다. 닭장과 비둘기 박스 같은 우리들의 아파트구조는 업자에 의해 낮은 비용으로 사람을 어떻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 획일화로 치닫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한정된 토지의 핑계로 멈출줄 모른다.

이러한 정형화된 주택환경에서는 올바르게 건전한 심성이 길러지지 않는다. 또한 生活環境에 나무와 잔디, 새소리가 없어지고 쾌적성이 결여되면 소외감을 가진다. 이 소외 속에서의 인간 행동은 대인관계면에서 냉담해지고, 친밀도가 희박해지며, 공감대 형성의 결여로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지극히 몰인정하고 냉정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물량주의, 능률주의, 편견의주의만을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단순한 기능만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인간의 심미성이 억압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環境에서 계속자란 어린이들은 때로는 병아리를 들고 콘크리트 건물 옥상에 올라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나중엔 죽는편이 이기는 내기를 하기 일쑤다.

즉 자연의 畏敬이 경시된 곳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며, 어떠한 경기에서도 이기고야 만다는 이기주의로 전략하게 되며, 동료를 헐뜯고, 살인등의 청소년 범죄가 점점 포악해 진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개발은 人間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

필히 남겨야 할 공간성, 자연 그대로의 구릉지와 동산을 살리는 주택단지, 개성이 있는 다양한 색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세계인을 위해 문을 활짝 연 우리는. 이제 경제성장 못지않게 손님들이 와서 마음껏 뛰고 놀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가와 기업인, 국민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역사적 의미가 깃든 장소, 수려한 자연경관을

● 기업인은 물론 전 국민은 맑은 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및 수려한 경관의 환경문화유산 保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영구히 보전하는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을 즐기치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전세계인들이 경탄해 마지않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보전되기까지는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미국의 장기 국립공원계획의 추진운동, 스위스의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 등의 공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전 기업인은 물론 전국민은 맑은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및 수려한 자연경관의 환경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걸작품은 역사적 의미가 깃든 사적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인간의 손이 닿지않는 원시적인 풍경, 즉 자연 그대로의 山이나 숲, 그리고 자연경관이기 때문이다. *

